

Psalms were translated into Korean as Yeondo (煉禱) prayers, and they were used in funeral rites in the 1800s. Psalms 24, 51, 113, 119, 130, 148, 149, and 150 were translated and published in the woodblock book Tyeonjyu-syeonggyo-ryegyu (天主聖禮規) in 1865. Psalms 51 and 130 were also translated in Tyeonjyu-syeonggyo-gonggwa. The Psalms were adapted into prayers, with a partial commentary. For the Yeondo (煉禱) prayers, the Psalms contain musical and ritual elements in abundance, since several Christians repeated in unison the Yeondo (煉禱) prayers in their funeral prayers throughout the night and in their funeral processions.

Finally, some of the Psalms were translat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n the Miimi-gyohoe-gangrye, Uigyung-mundab, Wi-wonib-gyoin-gyudo, and Chosun-Christian-journal. Sixty-two of the Psalms were translated in Sipyun-chwalyo.

Keywords

Psalms

Yeondo(煉禱) prayer

Tyeonjyu-syeonggyo-ryegyu(天主聖教禮規)

The year 1900

Translation

■ 투고일: 2015년 04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4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5월 06일



김창주(한신대)

1. 들어가는 말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선교 활동 중 극적인 순간마다 시편을 활용하여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였다(막 15:34; 눅 23:46).¹⁾ 뿐만 아니라 시편은 지난 3천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의 안일한 자세를 자극하였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었으며, 구원의 소망을 불어넣었다. 지금도 신앙인들이 시편 암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틈틈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또한 앞으로 도 시편은 위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옆으로 이웃과 기쁨을 서로 나누며,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1) H. 뒤스베르그, "시편을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학전망」 25 (1974년 여름), 169-78.

안으로 독자를 고양시키는 말씀이 될 것이다.

특히 시편 119편의 시인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노래한다. 이 구절 때문인지 가톨릭에서는 하루 여덟 차례 기도하는 ‘한 주간의 시편기도’를 시행하는 수도원 전통이 전해온다. 각 수도원마다 독특한 신앙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시편을 한 주간의 기도로 편성하고 실천하고 있다.²⁾ 그러나 이런 전통이 독특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는 이미 유대교에서 비롯되어 중세 교회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얼핏 읽으면 시편의 내용이 엇비슷하고 반복적인 것 같은데 왜 하필 150편이며 더구나 5권으로 나뉘어 있을까? 지금까지 모세가 오경 저작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다윗도 역시 그의 권위에 견줄만한 인물이며 시편 저작을 남겼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시편의 3년 단위 일과표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글은 유대교가 시편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중세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보여준 시편의 쓰임을 비교한다. 두 교회의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쪽 교회가 얼마나 시편을 중요하게 활용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시편 활용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중세의 시편 활용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빈번하다고 판단하여 대표 수정한 일과표를 제시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신앙인들에게 시편의 중요성은 결코 축소되거나 약화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대교와 서구 기독교의 시편 활용 방식은 동양의 경전 교육과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성서일과의 네 단계는 동양적 고전읽기의 세 단계와 비견할 수 있는데 그 원칙과 정신은 시편이 제시하고 시인들이 실천한 방식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³⁾ 따라서 시편의 정기적인 독서와 순환적 낭독은 일차적으로 경전에 대한 일종의 수행적인 행위

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합일하는 수련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유대교와 시편일과

시편은 1-41, 42-72, 73-89, 90-106, 107-150편으로 구분되어 있다. 형식상 모세 오경처럼 다섯 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은 구약성서의 분류 방식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경우는 후대의 연구자들이 제1, 제2, 제3 이사야로 분류하지만 이것은 편의상 붙여진 명칭이지 공식적인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편 1-150편이 이미 한 권의 책으로 경전의 지위를 확보한 상태인데 그 안에 다섯 개의 묶음을 분류해서 명확히 표식을 해놓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다섯 권으로 세분화된 것일까? 과연 시편의 5권 구조는 모세 오경과의 유비적인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신학적 편집이 반영된 것일까?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아직도 논쟁 중이지만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견해로서 미드라시 시편에서 제시된 것처럼 오경과 상응한다는 이론이다. 현대 독자들은 시편의 5권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시편에 대한 오랜 역사적 전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초대 기독교는 물론 유대교 내부에서도 다섯 권으로 구성된 시편의 실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롬’으로 알려진 히에로니무스(Eusebius Hieronymus: 347-419)가 392년경에 소프로니우스(Sophronius) 이름으로 쓴 편지에 의하면 이미 시편을 다섯 권으로 나뉜 상태로 소개한 바 있으며,⁴⁾ 후대의 미드라시 시편(Midrash Tehillim)의 설명은 훨씬 더 구체적이다.

2) Thomas Merton, *Praying the Psalms* (Collegeville, MN: St. Johns Press, 1956); 오무수 역, 『시편으로 드리는 가장 완전한 기도』 (서울: 성바오로, 1985), 88-89.

3) 유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32 (2009년 6월), 30-62.

4) Paul Sander, “Five Books of Psalms?” in edited by Erich Zenger,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the Psalms* (Leuven, Paris: Peeters, 2010), 677-87.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다섯 권의 율법을 주었듯이 다윗 역시 시편 다섯 권, 즉 ‘복 있는 사람’(시 1:1), ‘마스길, 지휘자’(시 42:1), ‘아삽의 시’(시 73:1), ‘모세의 기도’(시 90:1), 그리고 ‘주의 구원을 받은 자여 외쳐라’(시 107:2)를 주었다.⁵⁾

이와 같은 유대교의 견해는 3세기 랍비 시므온(Rabbi Simeon)에 의해 옹호되었으며, 중세의 랍비들도 시편을 책(rp,se)으로 부르는 대신 낱권을 의미하는 두루마리(hl'gIm.)로 적고 있다.⁶⁾ 이상의 전통적 견해는 모세를 다윗과 연관시켜 시편의 5권 구조를 통하여 오경과 시편의 신학적 유비와 상응성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역대기 사가는 이런 점에서 모세가 희생제사의 설계자이고 다윗은 성전제사의 초석을 놓았다는 신학적 해명을 명쾌하게 주장하고 있다(대하 8:13-14, 23:18). 즉 시편의 5권 구조는 다윗을 모세와 견줄 수 있는 가능자로 보고 모세가 오경을 대표한다면 다윗도 그에 상응하는 시편을 같은 방식으로 남겼다고 평가한 것이다.

둘째는 시편의 성장, 혹은 확장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각 권의 말미에 나오는 송영은 시편의 점진적인 확대를 반영하는 표식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편 2권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노래가 끝나니라’(시 72:20. 개역개정)로 마감된다. 이 구절은 명백하게 다윗 시편의 최초 형태(1-2권)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얼른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시편 2권이 72편에서 끝나지만 시편 42-83의 두드러지게 공통적인 현상은 이른 바 ‘하나님 네 글자’(YHWH)를 쓰지 않는 대신 ‘엘로힘’을 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엘로힘 시집’으로 불리는 이 노래들이 시편 2-3권에 두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적어

도 현재 형태의 시편 1-2권이 독립적으로 통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까닭에 많은 학자들이 시편 1-3권을 한 때 완결된 형태로 간주하는 것이다.

한편 시편 4-5권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앞의 1-3권과 달리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시편의 대표적인 구절로 ‘할렐루야’를 들 수 있으나 1-3권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데 비하여 주로 4-5권에서 23 차례 사용된다. 또한 표제가 없는 무제시가 1-3권에 비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의미와 역할이 분명히 않은 ‘셀라’도 전체 71차례 가운데 오직 네 차례만 언급되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시 140:3,5,8; 143:6).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핀 바와 같이 시편 4-5권의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편 1-3권과 함께 수집 확장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관점에서 시편의 5권 구조를 논의해왔다면 이제는 시편의 5권 구조가 유대교의 수행적 시편 읽기에 관련된 성서일과로 보는 견해를 소개하려고 한다. 누가복음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눅 24:44)이라고 한 것은 이미 율법서, 예언서, 시편을 한 묶음의 일과로 읽었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시편의 활용, 곧 매주 안식일의 독서 분량이 정해졌다고 설명하려는 것이다. 유대교는 역사적으로 두 차례의 성전 파괴와 한 차례의 성전 모독 사건을 겪으면서 성전 중심의 제사의식이 점차 회당 중심의 말씀 제의로 변화되어 갔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경전으로서 오경과 예언서가 점점 권위를 갖게 되었고 후에는 시편도 회당의 말씀 예배에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대교의 미시나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매일 아침에 다음과 같은 시편을 낭송하였다고 규정한다(Tamid 7.4).

5) William G. Braude, *The Midrash on Psalm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4), 1, 5.
6) Nahum M. Sarna, *Songs of the Heart: An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New York: Schocken, 1993), 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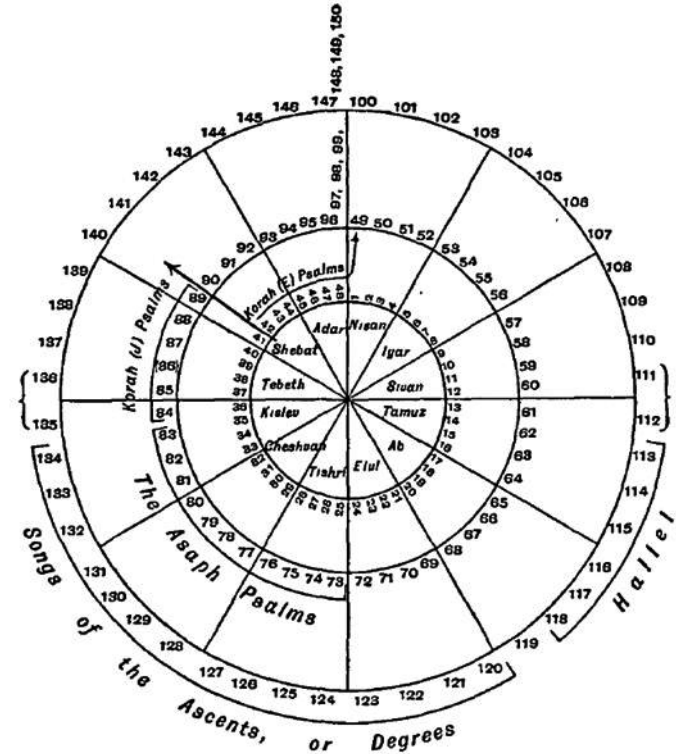
| | 첫째날 | 둘째날 | 셋째날 | 넷째날 | 다섯째날 | 안식전날 | 안식일 |
|--------|-------|-------|-------|-------|---------------------|-------|-------|
| Mishna | 시편 24 | | 시편 82 | 시편 94 | 시편 81 ⁷⁾ | 시편 93 | 시편 92 |
| LXX | 시편 48 | 시편 48 | 시편 82 | - | - | 시편 93 | 시편 92 |

흥미로운 점은 기원전 3세기의 번역본으로 알려진 70인역(LXX)이 미시나의 전통대로 안식일을 기점으로 첫날부터 안식일까지 읽어야 할 시편을 표제에 새겨놓았다는 점이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일과는 제시하지 않고 셋째 날의 시편 역시 명확하지 않으나 시편의 활용이 구체화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활용이 시편의 150편 5권 구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이보다 구체적인 근거는 오경의 일과표에서 찾을 수 있다. 유대교 공동체에는 1년 혹은 3년 주기의 오경읽기 전통이 이미 오래 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즉 매주 안식일 예배에는 반드시 해당 주에 읽어야 할 오경과 예언서의 분량이 짜여있었다. 지난 20세기 초반 킹(Edward G. King)은 팔레스틴 지역의 안식일 예배에 오경의 3년 일과표와 상응하게 편성한 시편 3년 주기 일과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논의한 바 있다. 킹에 의하면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편성된 것은 태음력에 따른 3년 단위 일과표에 근거한 것으로 3년의 안식일 숫자와 상응한다. 실제로 그의 논지는 훨씬 정교하다. 시편의 각 권 말미에 들어있는 송영은 오경일과에 견줘볼 때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음 그림에서 안쪽부터 첫 해, 둘째 해, 그리고 셋째 해를 가리킨다.

시편 1권과 3권은 스باط(Shebat)월에 끝나는데 이것은 오경의 창세기 1장과 레위기의 일과표도 마찬가지이다.⁸⁾ 시편 2권(72편)과 오경의 출애굽기(40장) 읽기는 엘룰(Elul)월에 마친다. 시편 2권의 결론 72편은

7) 안식일 이틀 전날에 낭송하게 되어있는 시편 81편은 시내산 계약을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매달 첫째 날, 곧 월삭과 초막절에 읽혔다. 후에 시편 일과표에서 현재의 요일로 고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 King, "The Influence of the Triennial Cycle on the Psalter," 209.



〈시편 3년 주기 일과표〉

출애굽기 40장 이 서로 짝이다. 두 일과의 의미는 놀랍게도 유사하면서도 상승적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시 72:19) :: ‘여호와 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출 40:34).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시 72:19) ::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더라’(출 40:33).

한편 아삽 시편(시73-83)은 일곱째 디스리(Tishri)월에 읽게 되어 있고 창세기 30장과 연결된다. 이 두 일과의 공통점은 ‘요셉의 출생’과 ‘아삽 시편’은 어원적으로 서로 맞물린다. 또한 레위기가 둘째 해 같은 달에 읽도록 편성된 것은 아삽 시편은 본래 ‘레위 시편’이었기 때문이다.

시편 4권을 시작하는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모세의 유일한 시편인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경과 시편의 일과표에 따르면 자명한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다.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모세가 스바월에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신명기의 마지막 일과(신 33:1-34:12)에는 모세의 노래와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진 90편과 함께 읽는다. 이 밖에도 시편 90-97편과 신명기 32-33장 사이에는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⁹⁾

시편 42-49편, 시편 90-100편, 시편 144-150편은 3년 일과표의 각각 마지막 분량으로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하나님의 왕권을 설교한 ‘모세의 노래’와 서로 통하도록 구성된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은 3년차 엘룰(Elul)월 처음 안식일에 읽게 되어 있는데 117번째 안식일인 이 날은 신명기의 처음 일과표와 맞물려 ‘토라’에 대한 강조가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순례시 120-134편은 엘룰 월 첫 번 안식일부터 수전절(hanukkah)까지 15주 동안 읽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때 순례의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열매를 성전에 바치는 것이다.

킹이 제시한 일과표의 3년 차는 시편 146편을 마지막 안식일에 읽음으로써 종결되는 상황이지만 아직 네 편(147-150)이 더 남아있다. 사실 시편 146-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상한 것은 시편 1-4권의 말미에 송영으로 갈무리하는데 비해서 5권의 송영은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5권의 송영은 마지막 시편 150으로서 5권의 송영일 뿐 아니라 시편 전체의 결론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런데 시편 146-150편은 3년 구조로 짜인 일과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

9) King, "The Influence of the Triennial Cycle on the Psalter," 210.; Duane L. Christensen, "The Book of Psalms within the Canonical Process in Ancient Israel," *Journal of Evangelical Theological Studies* 39/3 (September 1996), 42132.

다. 시편 3년 일과표는 태음력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태양력과 차이가 점점 커진다. 그리하여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추가하여 태양력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지금도 태음력은 3년에 한 번씩 13개월로 편성된 달력을 유지함으로써 태양력과 균형을 맞춘다. 정상적으로 3년 차 일과를 따르면 아달(Adar)월 마지막 안식일에 146편을 낭송하면 전체 일과는 완성된다. 그러나 4차례의 안식일이 포함된 윤달을 위한 일과 때문에 현재와 같이 150편으로 확장된 것이다.¹⁰⁾ 그리하여 시편 총수는 본래 3년 안식일 수에 맞춰 147편이었다가 후대에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의 일과를 채우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150편이 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되는 실정이다.¹¹⁾

지금까지 시편의 3년 주기 독서일과가 단순히 문자적 비교를 넘어 오경과 시편 사이의 평행 혹은 연관성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치밀하게 기획되었는지 토의해왔다. 시편의 150편 5권 구조는 3년 단위로 편성된 시편일과를 파악함으로써 오경의 일과표와 더불어 신학적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정교한 신학적 장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유대교의 시편 3년 주기 일과는 오경의 일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한 주, 한 달에 국한시키지 않고 3년 동안 그리고 그 후에도 반복적으로 꾸준히 읽고 실천하며 반영할 수 있도록 일상의 삶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설계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3. 교회개혁 이전의 시편 활용

시편의 뿌리는 하나지만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특정 절

10) Snaith, "The Triennial Cycle and the Psalter," 304.; King, "The Influence of the Triennial Cycle on the Psalter," 203.
11) 시편 1편은 최종 편집과정에서 오경과의 관련성을 위해 시편의 서문격으로 첨가되었고,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편 108편, 117편이 4권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한 때 시편의 전체 147개는 '야곱의 나이'에 따른 것으로 보기도 한다. *Jerusalem Talmud Sabbath xvi.*

기에 따라 산발적으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면 고난주간에 시편 22편을 읽거나, 사순절 기간에 주로 참회시로 알려진 51편을 비롯한 몇몇 시편들을 읽음으로써 전체 150편을 아우르기보다 해당 시편이 활성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독교 전통에서도 시편을 1년이나 한주 단위의 수행적 읽기를 실천한 예가 발견된다. 즉 유대교가 시편을 3년 단위로 읽었다면 중세 교회와 일부 수도원에서는 시편을 1년, 혹은 주간 단위로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동방교회의 전통을 살펴보자. 우선 시편 전체를 20과로 설계하고 각 과(cathism)에는 1-4편의 시편이 포함된 세 단위의 스타자(stanza)로 편성되어 있다.

| Cathism | Stanza | Psalms | Cathism | Stanza | Psalms |
|---------|--------|-------------|---------|--------|---------------------|
| I | 1 | 1,2,3 | XI | 1 | 78 |
| | 2 | 4,5,6 | | 2 | 79,80,81 |
| | 3 | 7,8 | | 3 | 82,83,84,85 |
| II | 1 | 9,10,11 | XII | 1 | 86,87,88 |
| | 2 | 12,13,14 | | 2 | 89 |
| | 3 | 15,16,17 | | 3 | 90,91 |
| III | 1 | 18 | XIII | 1 | 92,93,94 |
| | 2 | 19,20,21 | | 2 | 95,96,97 |
| | 3 | 22,23,24 | | 3 | 98,99,100,101 |
| IV | 1 | 25,26,27 | XIV | 1 | 102,103 |
| | 2 | 28,29,30 | | 2 | 104 |
| | 3 | 31,32 | | 3 | 105 |
| V | 1 | 33,34 | XV | 1 | 106 |
| | 2 | 35,36 | | 2 | 107 |
| | 3 | 37 | | 3 | 108,109 |
| VI | 1 | 38,39,40 | XVI | 1 | 110,111,112 |
| | 2 | 41,42,43 | | 2 | 113,114,115,116:1-9 |
| | 3 | 44,45,46 | | 3 | 116:10-19,117,118 |
| VII | 1 | 47,48,49 | XVII | 119 | |
| | 2 | 50,51 | | | |
| | 3 | 52,53,54,55 | | | |

| | | | | | |
|------|---|----------|-------|---|---------------------|
| VIII | 1 | 56,57,58 | XVIII | 1 | 120,121,122,123,124 |
| | 2 | 59,60,61 | | 2 | 125,126,127,128,129 |
| | 3 | 62,63,64 | | 3 | 130,131,132,133,134 |
| XI | 1 | 65,66,67 | XIX | 1 | 135,136,137 |
| | 2 | 68 | | 2 | 138,139,140 |
| | 3 | 69,70 | | 3 | 141,142,143 |
| X | 1 | 71,72 | XX | 1 | 144,145,146 |
| | 2 | 73,74 | | 2 | 147:1-11,147:12-20 |
| | 3 | 75,76,77 | | 3 | 148,149,150 |

눈에 띄는 것은 일과표가 시편의 차례대로 배열하되 길이를 안배한 사실이다. 이 점에서 서방교회의 한 주간 시편 기도와는 짜임새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시편을 폐쇄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각 절기에 따라 약간의 신축성을 꾀한 것이 동방교회가 보여준 시편일과의 특성이다. 시편기도는 토요일 저녁예배로 시작되어 한 주간 이어진다. 이렇게 한 주간을 위한 시편 낭송에 여섯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1) 부활 후 첫 주부터 9월 21일까지, 성탄절 축제 전(12월 20일)부터 주현절 축일이 끝날 때까지 (1월 14일), 사순절 전 2 주간 곧 사육제와 오순주일 (Quinquagesima)¹²⁾까지.
- 2) 성십자가 현양 축일(9월 21일)부터 성탄절 직전까지(12월 20일), 주현절 축일 끝날부터 부활절 9주전 곧 탕자 주일까지.
- 3) 사순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째 주 동안.
- 4) 사순절의 다섯 번째 주간의 세족 목요일 참회 성서(Great Canon)를 낭송할 때.

12) 부활절을 기준으로 7주전 주일을 Septuagesima, 6주전 주일을 Sexagesima, 그리고 5주전 주일을 Quinquagesima라고 부른다. 특히 Quinquagesima 주간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주의 고난에 참여하며 부활을 준비해야함으로 전통적으로 '용서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였다.

- 5) 사순절의 다섯 번째 주간의 화요일에 참회 성서를 낭송할 때.
- 6) 고난 주간

위의 1), 2), 6)의 경우는 해당 주간에 시편 전체를 한 차례 낭송하고, 3), 4), 5)의 경우는 해당 주간에 시편을 두 차례 낭송한다.

그밖에도 아침과 저녁에 두 차례 시편을 읽는 예배와 주일을 제외한 요일에는 하루 6차례 시편 기도를 실천하는 방식 등으로 시편을 활용하기도 하였다.¹³⁾

그런가 하면 서방교회에서는 하루 여덟 차례 기도하는 성무일과(divine office; 聖務日課) 전통이 정착되었다. 왜 하필 하루 여덟 차례인지 그 설명은 분명치 않다. 다만 시편 119편에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즉 164절의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와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에서 하루에 여덟 번 기도가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탈무드가 시편 119편을 ‘8의 반복시’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숫자 ‘8’의 신학적 의미는 매우 상징적이다(Babylon Talmud Berachos 4b). 그리하여 중세 서방교회는 성무일과를 통하여 하루 8차례 기도를 각각 다음과 같이 명명하여 실천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즉 자정기도(Vigils), 새벽기도(Lauds), 아침기도(Prime), 오전기도(Terce), 한낮기도(Sext), 오후기도(None), 저녁기도(Vespers), 마감기도(Compline) 등이다. 이상의 일과는 일일 8번 기도한다는 뜻으로 ‘팔성무’(八聖務)라고도 불리며, 더러는 야간기도, 아침기도, 제1시기도, 제3시기도, 제6시기도, 제9시기도, 저녁기도, 끝기도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혼란스럽다.¹⁴⁾

13) Holladay, *The Psalms through Three Thousands Years*, 377.

14) 이형우 역주 『수도규칙』 (왜관: 분도출판사, 1991), 115; 이성민, “성무일과의 성서적 배경과 『사도전승』의 가르침,” 『신학과 세계』 제63호 (2008년 겨울), 203-228.

다음 표는 중세 교회가 하루 8번 예배에 활용된 시편 중심의 성무일과이다. 굳이 ‘시편 중심’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중간에 사무엘상의 ‘하나의 기도’와 누가복음의 ‘마리아 찬가’와 ‘스가랴의 노래,’ 그리고 다니엘 외경에 포함된 ‘세 청년의 기도’ 등이 함께 읽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성무일과에 따른 시편 기도¹⁵⁾

| | 주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자정 | 95 | 95 | 95 | 95 | 95 | 95 | 95 |
| | 1-3 6-14 16-18 19-21 | 27-38 | 39-42 44-50 52 | 53-62 64,66,68 | 69-80 | 81-89 94,96,97 | 98-109 |
| 새벽 | 93(51) | 51 | 51 | 51 | 51 | 51 | 51 |
| | 100/118 | 5 | 43 | 65 | 90 | 143 | 92 |
| | 63 | 63 | 63 | 63 | 63 | 63 | 63 |
| | 67 | 67 | 67 | 67 | 67 | 67 | 67 |
| | 단3:35-66 148-150 눅1:68-79 | 사12:1-6 148-150 — | 사38:1-20 148-150 — | 삼상2:1-10 148-150 — | 출15:1-19 148-150 — | 합3:2-19 148-150 — | 신32:1-43 148-150 — |
| 아침 | 22-26 54 118/93 119:1-32 | 54 119:1-32 | 54 119:1-32 | 54 119:1-32 | 54 119:1-32 | 54 119:1-32 | 54 119:1-32 |
| 오전 | 119:33-80 | 119:33-80 | 119:33-80 | 119:33-80 | 119:33-80 | 119:33-80 | 119:33-80 |
| 한낮 | 119:81-128 | 119:81-128 | 119:81-128 | 119:81-128 | 119:81-128 | 119:81-128 | 119:81-128 |
| 오후 | 119:129-176 | 119:129-176 | 119:129-176 | 119:129-176 | 119:129-176 | 119:129-176 | 119:129-176 |
| 저녁 | 110-115 눅1:46-55 | 116-117 120-121 — | 122-126 — | 127-131 — | 132-133 135-137 — | 138-142 — | 144-147 — |

15) 표에서 —는 매일 반복을 의미한다.

| | | | | | | | |
|----|-----------|--------|--------|--------|--------|--------|--------|
| | 4 | 4 | 4 | 4 | 4 | 4 | 4 |
| | 31:2-6 | 31:2-6 | 31:2-6 | 31:2-6 | 31:2-6 | 31:2-6 | 31:2-6 |
| 마감 | 91 | 91 | 91 | 91 | 91 | 91 | 91 |
| | 134 | 134 | 134 | 134 | 134 | 134 | 134 |
| | 눅 2:29-32 | — | — | — | — | — | — |

위의 성무일과는 교회의 절기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주어 신축성 있게 활용되었다. 즉 사순절 3주전 주일부터 종려주간까지 매주일 아침기도(Lauds)의 시편 51편은 시편 93편으로 대체되고, 시편 118편은 시편 100편으로 바뀌어 낭송함으로써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와 함께 찬미를 돌리게 한다. 또한 같은 기간 주일 오전기도(Prime)에서는 시편 93편 대신 시편 118편을 읽는다.¹⁶⁾

그러나 아조르나멘토(aggiornamento)를 내세운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는 이와 같은 중세기의 매일기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판단하고 현대인의 삶을 고려한 성무일과의 일대 쇄신을 단행한 바 있다. 즉 종전의 자정기도와 새벽기도를 ‘아침기도’로 묶고, 이전의 오전기도, 한낮기도, 오후기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낮기도’로 조정하고, ‘저녁기도’와 ‘밤기도’ 등 네 차례로 줄인 것이다. 그러나보니 시편 전체를 활용하던 중세 교회와 수도원 전통과 달리 특정 시편들이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저주시’(imprecatory psalms)로 알려진 일부 시편들(시 58, 83, 109, 137편)과 적어도 열 여덟 개의 탄원시 등이 성무일과에서 완전 배제되었으나 한편에서는 일과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즉 아침기도에는 초대송(invitatory)으로 고정된 시편 95편을 더해 마흔 하나의 시편, 낮기도에는 서른 여덟의 시편, 저녁기도에는 서른 아홉의 시편, 그리고 밤기도에는 아홉 시편을 부르게 되어있고 이

중에 서로 중복되는 경우를 빼면 모두 114편이 활용된다.¹⁷⁾

이와 같이 시편 전체 150편 중 114개의 시편이 일과에 포함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성무일과 자체도 이전보다 한결 느슨한 형태로 짜여있다. 즉 아침·낮·오후기도는 4주 단위로 저녁기도는 한 주에 한 차례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4주 동안에 시편 전체를 낭송할 수 있는 구조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눈에 띄는 일과는 시편 119편이 낮기도에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정이지만 성무일과를 따르는 사람 중에는 낮기도나 저녁기도를 놓치거나 건너뛸 수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다소 절박하지 않는 시편에 속하는 ‘가장 긴 시편 119편’을 낮기도 시간에 넣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트리엔트 공의회(1545-63)의 성무일과에 의하면 모든 시편 낭송을 전후로 대부분 시편에서 따온 짧은 응답송(antiphon)이 있고 영송(Gloria Patri)으로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시간이 꽤 소요된다. 그러니 시편 119편은 4주 단위 성무일과에서도 강림절, 사순절, 부활절 등 특별한 절기에 연속적으로 읽도록 편성한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의 쇄신책은 성무일과 중 시편 읽기와 관련해 볼 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후 몇몇 개신교 교회 측에서 앞다퉀 성서일과를 개발하는 촉진제가 되었다는 점은 전자이고, 결정적으로 시편의 예에서 보듯 결과적으로 선택적 읽기를 용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후자에 해당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다루게 될 것이다.

16) Holladay, *The Psalms through Three Thousands Years*, 372-73.

17) 아침/저녁에 중복되는 시편은 67, 119, 135, 144편이며 낮/아침/저녁에 중복된 시편은 19, 45, 57, 119편이고, 그리고 밤/아침/낮/저녁에 겹치는 시편은 16, 86, 88, 130, 143편 등이다.

4. 성서일과로 본 시편 활용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성무일과가 간소화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편의 모든 구절을 하루 삶에 적용하며 기도로 활용하는 전통은 여전히 살아있다. 여기서는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이 속해있던 트라피스트(Trappists) 수도회가 실천하고 있는 ‘한 주간의 시편 기도’를 소개하려고 한다.

| Cathism | Stanza | Psalms | Cathism | Stanza | Psalms |
|---------|--------|-------------|---------|--------|---------------------|
| I | 1 | 1,2,3 | XI | 1 | 78 |
| | 2 | 4,5,6 | | 2 | 79,80,81 |
| | 3 | 7,8 | | 3 | 82,83,84,85 |
| II | 1 | 9,10,11 | XII | 1 | 86,87,88 |
| | 2 | 12,13,14 | | 2 | 89 |
| | 3 | 15,16,17 | | 3 | 90,91 |
| III | 1 | 18 | XIII | 1 | 92,93,94 |
| | 2 | 19,20,21 | | 2 | 95,96,97 |
| | 3 | 22,23,24 | | 3 | 98,99,100,101 |
| IV | 1 | 25,26,27 | XIV | 1 | 102,103 |
| | 2 | 28,29,30 | | 2 | 104 |
| | 3 | 31,32 | | 3 | 105 |
| V | 1 | 33,34 | XV | 1 | 106 |
| | 2 | 35,36 | | 2 | 107 |
| | 3 | 37 | | 3 | 108,109 |
| VI | 1 | 38,39,40 | XVI | 1 | 110,111,112 |
| | 2 | 41,42,43 | | 2 | 113,114,115,116:1-9 |
| | 3 | 44,45,46 | | 3 | 116:10-19,117,118 |
| VII | 1 | 47,48,49 | XVII | 119 | |
| | 2 | 50,51 | | | |
| | 3 | 52,53,54,55 | | | |
| VIII | 1 | 56,57,58 | XVIII | 1 | 120,121,122,123,124 |
| | 2 | 59,60,61 | | 2 | 125,126,127,128,129 |
| | 3 | 62,63,64 | | 3 | 130,131,132,133,134 |

| | | | | | |
|----|---|----------|-----|---|--------------------|
| XI | 1 | 65,66,67 | XIX | 1 | 135,136,137 |
| | 2 | 68 | | 2 | 138,139,140 |
| | 3 | 69,70 | | 3 | 141,142,143 |
| X | 1 | 71,72 | XX | 1 | 144,145,146 |
| | 2 | 73,74 | | 2 | 147:1-11,147:12-20 |
| | 3 | 75,76,77 | | 3 | 148,149,150 |

위의 도표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앞에서 논의한 ‘성무일과로 본 시편 기도’를 비교해볼 때 전체적인 윤곽은 비슷하지만 우선 신약성서를 비롯한 여타 성서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전체 시편을 본문으로 삼았다는 특징이 눈에 띈다. 트라피스트 수도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대로 시편의 한 글자도 빠지 않고 전체 시편을 삶의 중심에 놓고 따라 하루 여덟 차례 기도하며 신앙의 정진을 꾀하고자 한다. 이 수도회의 ‘시편 기도’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전통의 간소화로 인하여 시편의 선택적 읽기가 용인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이 수행적 읽기가 보통의 신앙인들의 일상에서 가능한지 반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한 주간의 수련은 특정한 공간과 시간이 전제된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시편의 선택적 읽기는 다음에 논의하게 되지만 간소화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영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톨릭의 성무일과는 성경본문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던 개신교 교단에서도 채택하여 지금은 많은 교단이 3년 단위의 성서일과를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여 활용한다. 미국 주요 교단이 에큐메니칼 사업으로 펴낸 ‘말씀의 축제’(Feasting on the Word)가 대표적이다. 이 성서일과는 개정판 공동일과(Revised Common Lectionary)를 기준으로 A, B, C 유형으로 나누어 각 4권 총 12권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전서를 3년 주기로 배열한 것이어서 시편 중심의 논의를 집중하기에

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¹⁸⁾

때마침 은퇴 목회자와 신예 학자가 공동 집필한 ‘설교와 예배를 위한 시편일과’(Psalms for Preaching and Worship: A Lectionary Commentary)가 출판되어 눈길을 끈다.¹⁹⁾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성무일과에서 시편의 관심과 중요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책의 등장은 반갑기 그지없는 현실이다. 저자들은 A, B, C 3년 단위로 시편을 편성하고 절기에 따라 읽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들의 일과표에 제시된 시편은 전체의 1/3이 넘는 선 한편의 노래가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뿐 아니라 일과표에 포함된 아흔 아홉의 시편도 원문대로 사용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발췌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주는 경우도 발견된다. 특히 마흔 세 개의 시편이 저자인지 출판사인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일부분만 활용된 것이다. 아마도 본문의 배열과 예배 시간의 제약 때문이었을 텐데 시편을 발췌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다 보면 신학적으로 시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악화시키거나 조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²⁰⁾

다행히도 공동일과는 꾸준히 개정되면서 특정 시편의 배제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 예를 들어 시편 137편 7-9절은 저주시로 잘 알려져 있었기에 공동일과에서는 한 때 선택적으로 제시하였다가 완전히 제외시킨 적도 있었다. 분명히 공동일과는 일부 탄원시와 저주시에 들어있는 강하고 거친 말투에 대하여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시편과 성서에서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욕설이 포함된 본문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본문들이 반드시 의미 없다거

나 나아가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듯 특정 시편을 전체 일과에서 제외하면 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침식되고 그로 인해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게 된다. 왜냐하면 독자가 시편의 언어를 제어하려들면 결국 실제로 중요한 삶의 일부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시인의 실상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제시한 ‘한 주간의 시편기도’는 언뜻 우직해보이지만 시편 전체를 한 주간에 읽게 하는 수행적 방식에 강조점이 있다.

성서번역을 통하여 서구 신학의 초석을 놓았던 제롬은 시편을 ‘위대한 성전’으로 은유한 바 있다. 최근에 야노프스키(Bernd Janowski)는 제롬의 ‘위대한 성전’ 개념을 활용하여 시편 신학을 논의한다.²¹⁾ 즉 시편 1-2는 성전의 대문으로 전체 시편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제시한다. 시편 150개의 노래는 다섯 권으로 세분화 되어 서사적 줄거리를 갖추게 되는데 여기에 시간적 뼈대 위에 공간적 구조를 더하여 ‘위대한 성전’이라는 은유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야노프스키에 의하면 시편의 150편은 노래와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전이 된다. 그런 점에서 시편의 저주시나 탄원시 등의 일부가 거슬린다고 하여 시편 읽기에서 배제한다면 성전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없을뿐더러 결국 성전의 위대성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대로 교회가 지금까지 신학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편 일과를 실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편 일과가 제한적으로 수도원 공동체나 교회력의 특정 기간에 시행되었다 해도 그 정기적 낭송의 신학적 중요성을 지나칠 수 없다. 그 근거는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오경의 3년 주기에 맞추어 시편도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한 주간의 시편기도’는 그보다 더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천지 창조의 7일 구

18) David L. Bartlett & Barbara Brown Taylor, *Feasting on the Word Worship Companion*, 12 Volum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3).

19) Roger van Horn & Brent A. Strawn, *Psalms for Preaching and Worship: A Lectionary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8).

20) van Horn and Strawn, *Psalms for Preaching and Worship*, 34.

21) Bernd Janowski, "Ein Tempel aus Worten: Zur theologischen Architektur des Psalters," 279-308, in edited by Erich Zenger,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the Psalms* (Leuven, Paris: Peeters, 2010).

조에 한 주간의 시편 기도를 배치함으로써 제롬이 제시한 ‘위대한 성전’보다 더 넓고 더 큰 우주적 관점에서 시편을 읽고 음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롬이 시편을 예루살렘이라는 한 공간적인 상징으로 한정했다면 한 주간의 시편기도는 성전이 위치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을 넘어 우주 창조적인 표상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한 주간의 시편기도에 따라 매일 매순간 정해진 분량을 낭송하여 7일 동안 완독함으로써 우주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따르도록 안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시편: 하나님의 시학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의 믿음과 삶을 반영한다. 랍비 유단(Rabbi Yudan)이 랍비 유다(Rabbi Judah)의 이름으로 말한다.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한 것은 그의 저작이지만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시대의 시편이다.”²²⁾ 시편의 힘은 누가 읽고 따라하든지 마치 ‘자신의 노래처럼 읊조리게’ 하는 정서적인 교감과 시공간을 뛰어넘는 수용적인 개방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시편은 이와 같이 거리감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사, 찬양, 탄원, 기쁨, 고통, 신뢰, 경외 등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의 자리와 현재 독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해석학적 가능성’을 열어준다. 유단의 지적처럼 시편은 저자와 독자 사이에는 저작 시간과 낭송 공간의 엄청난 간격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며 느낄 수 있는 공유의 영성이 있기 때문이다. 브루그만은 이런 점에서 시편이 가진 ‘기능의 공유성(commonality of function)’을 제안한다.²³⁾

시편에 관한 기능의 공유성이란 용어가 낯설게 들릴 뿐이지 사실 시

편이 지금까지 전달되어온 가장 큰 원동력이랄 수 있는 정서의 공감이다. 오늘날 같은 지적 저작권이 없던 시절에 시편은 공동체의 삶과 축제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비슷한 상황에 불리며 반복되는 동안에 현재와 같이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저자는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고 밝혀진 경우도 특정한 인물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시편이 최초 불리던 공간은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삶의 자리’가 분명하지만 후대 유대교와 기독교는 정경의 지위에 올려놓고 신앙공동체의 유산으로 받아들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시편의 공감적 기능을 질문하게 되면 자칫 본문 자체에 대한 연구와 분석보다 불리던 ‘삶의 자리’에 집중하게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양식사 연구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고 그 뿌리에 관한 해석학적 관심을 의미한다.²⁴⁾ 시편의 기능을 공유한다는 것은 언제든 읽고 그 정서를 느낀다면 가능하다.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앙 공동체는 시편에 내재한 인간의 희로애락을 일과적인 정서로 흘러보내지 않고 일상에서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설계하였다. 즉 유대교가 제정한 시편의 일과표가 바로 그것이다.

유대교는 시편 일과표를 근거로 전체 150편을 매일 ‘낮과 밤에’ 읊조리고(시 1:2) 3년을 기점으로 순환적인 독서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편독서는 동양적 학습방식과 비견해볼 때 사뭇 다른 듯 공통점이 발견된다. 동양에서는 본문의 통독(通讀)이 첫 걸음이다. 글자 그대로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 읽어가는 것이다. 다음은 다독(多讀)으로 틈나는 대로 낭송하여 암기의 단계까지 나아간다. 마지막은 정독(精讀)의 과정을 거친다. 자세히 차분하게 주해를 곁들여 읽는 과정을 통하여 본문의 깊은 의미를 깨우친다. 이 모든 과정의 독서법은 ‘백 번 읽으면 저절로 뜻을 알게 된다’(讀書百遍義自見)는 구절로 요약된다.²⁵⁾ 이런 점

22) Sarna, 윗글, *Songs of the Heart*, 4.

23) Walter Brueggemann, “The Psalms and the Life of Faith: A Suggested Typology of Function,” in edited by Rolf A. Jacobson, *Soundings in the Theology of Psalms: Perspectives and Methods in Contemporary Scholarship* (Minneapolis: Fortress, 2011), 1–25.

24) Brueggemann, 윗글, “The Psalms and the Life of Faith,” 2–3.

25) 왕대일, 『기독교 경학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325–50.

에서 동양의 공부 방식이 약간 느슨한 형태라면 성서일과는 규격화, 혹은 제도화된 틀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와 같은 성서일과의 전통은 유대교의 오랜 유산으로서 중세 기독교가 이어받았고 지금도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셈이다. 중세교회의 성서일과(lectio divina)와 관련하여 수도사 귀고 2세(Guigo the Carthusian; 1115-1198)가 제안한 바 있는 네 단계 독서는 시편읽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²⁶⁾

- 1) 독서(Lectio): 본문을 소리 내어 읽는다. 본문의 낱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읽으며 문장과 문장 그리고 전체 내용을 파악한다.
- 2) 묵상(Meditatio): 성서를 정성들여 읽는다. 독서를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본문의 저자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핀다.
- 3) 기도(Oratio): 묵상을 통하여 깨닫게 된 사실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응답으로 기도 하는 단계이다.
- 4) 관상(Contemplatio): 말씀을 고리로 삼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즉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맡기고 교감하며 그분과 함께 있음에 집중한다.

위와 같이 주어진 시편을 네 단계로 읽는다면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lectio)를 넘어 심층의 뜻(meditatio)을 알아차리고, 나아가 시편이 전하려던 본래 메시지로 기도(oratio)를 하게 되고, 그 말씀에 충실한 기쁨을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을 찬미한다(contemplatio).²⁷⁾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다양한 삶의 노래들을 모은 것이다. 본

26) Urban T. Holmes, *A 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An Analytical Introduction* (New York: Seabury, 1981); 홍순원 옮김,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27) 렉시오 디비나의 네 단계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범주로 설명된다. 즉 순서대로 '기뻐거리다, 발견하다, 요청하다, 맛보다,' '연구, 행위, 참여, 고양,' '(입에) 넣어, 깨물고, 맛을 보고, (영양분으로 인해) 활기가 생기다,' '문자적 의미, 역사적인 뜻, 본문에서 말한 메시지, 알아차리고 기뻐하는 감사와 찬송,' 등등.

래 '하나님 시학'이라는 뜻의 theopoetics는 계시의 원천인 하나님과 그리고 풀어내기 힘든 삶의 신비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시적 감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용어이다. 다시 말해서 시란 독자의 상황에 따라 시의 새로운 의미가 확보되는 것처럼 성서의 하나님 경험과 말씀도 개개인의 관점과 상황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시학은 시편의 의미를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²⁸⁾ 하나는 시편이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역사비평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시인의 하나님 경험과 감성에 따른 시적 상상력의 결과물로 이해하려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시편의 대화 방식이 오경과 예언서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다. 즉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다양한 반응과 신앙고백이지만 오경이나 예언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과 선언이다. 그럼에도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경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²⁹⁾

그렇다면 시적 상상력으로 응축된 시편을 어떻게 경전으로 해석하고 내면의 삶과 영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을까? 어쩌다 한 번 읽고서 시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신앙의 선조들이 시편일과를 제시한 바와 같이 규칙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낭송한다면 어떤 때는 본문의 글자 하나하나에 사로잡히고, 또 다른 때는 시편의 깊은 뜻을 음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러는 본문 구절에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기도하고, 또 더러는 시편의 맛이 달콤하고 아름다워 흥얼거

28) 하나님 시학에 관해서는 와일더(amos Niven Wilder)와 보스(Cas J. A. Vos)의 저작을 참조하라. Cas J. A. Vos, *Theopoetry of the Psalms* (London, New York: T & T International, 2005). 궁궐의 양식비평 연구 이후 시편연구가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학문적 진보를 이루었지만 성서일과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김태경, "시편 연구: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구약논단』 53 (2014년 9월), 325-56를 보라.
 29) Brevard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513.

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시편의 본문은 신앙과 삶의 본분을 제시할 것이며, 시편의 텍스트(text)는 일상생활의 텍스처(texture)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당신의 법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자나 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 시편 119편 97절 -

6. 참고문헌

Zenger, Erich (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the Psalms*.
Leuven, Paris: Peeters, 2010.
김정우. 『히브리 시학』 서울: 도서출판 기혼, 2013.
김태경. “시편 연구: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구약논단』 53 (2014년 9월) 325-56.
손세훈. “시편 표제어 첨가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36 (2010년 6월) 92-115.
유윤종.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32 (2009년 6월) 30-62.
이성민. “성무일과의 성서적 배경과 ‘사도전승’의 가르침,” 『신학과 세계』 제63호 (2008년 겨울), 203-228.
뒤스베르그, H. “시편을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학전망』 25 (1974) 169-78.
Allen Jr., Horace T. “Common Lectionary: Origins, Assumptions, and Issues,” *Studia Liturgica* 21/1 (1991) 1430.
Attridge, Harold and M. E. Fassler (eds.). *Psalms in Community: Jewish and Christian Textual, Liturgical, and Artistic Traditions*. Leiden, New York: Brill, 2004.

Bechwith, Roger T. Calendar. *Chronology and Worship: Studies in Ancient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Leiden, New York: Brill, 2005.
Bellinger, W. H. “The Psalms as a Place to Begin for Old Testament Theology.” 28-39 in edited by Stephen Breck Reid. *Psalms and Practice*.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1.
Bernstein, Ellen. “Celebrating God, Celebrating Earth: Psalms, Sabbath, and Holy Days,”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37/5 (October 2010) 378-88.
Ceresko, Anthony R. “Endings and Beginnings: Alphabetic Thinking and the Shaping of Psalms 106 and 150,”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8/1 (2006) 32-46.
Crenshaw, James L. *The Psalms: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2001.
Flint, Peter W. and Patrick D. Miller Jr. (eds).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Leuven: Brill, 2005.
Gillingham, Susan E. “The Levitical Singers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92-123. in edited by Erich Zenger,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the Psalms*. Leuven, Paris: Peeters, 2010.
Holladay, William L. *The Psalms through Three Thousand Years: Prayerbook of a Cloud of Witness*. Minneapolis: Fortress, 1993.
Holmes, Urban. *A 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An Analytical Introduction*, New York: Seabury, 1981; 홍순원 옮김, 『그리

- 스도교 영성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Hunter, Alastain G. *Introduction to the Psalms*. London: T & T Clark, 2008.
- Guilding, Aileen “Some Obscure Rubrics and Lectionary Allusions in the Psalter,”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III/1(1952) 41-55.
- Jacobson, Rolf A. *Soundings in the Theology of Psalms: Perspectives and Methods in Contemporary Scholarship*. Minneapolis: Fortress, 2011.
- _____, “Burning Our Lamps with Borrowed Oil: The Liturgical Use of the Psalms and the Life of Faith,” 90-98 in edited by Stephen Breck Reid. *Psalms and Practice: Worship, Virtue, and Authority*.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1.
- Janowski, Bernd. “Ein Tempel aus Worten: Zur theologischen Architekturstur des Psalters,” in edited by Erich Zenger,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the Psalms*. Leuven, Paris: Peeters, 2010.
- King, Edward G. “The Influence of the Triennial Cycle on the Psalter,”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18 (Jan. 1904) 203-213.
- Lenchak, Timothy A. “What’s Biblical about ... the Choir?” *The Bible Today* 48/3 (May/June 2010) 169-70.
- McManus, Frederick R. *Thirty Years of Liturgical Renewal: Statements of the Bishops’ Committee on the Liturgy*. Washington: 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 1987.
- McCan, J. Clinton. “Thus Says the Lord: ‘Thou Shalt Preach on the Psalms!’” 111-22. in edited by Stephen Breck Reid, *Psalms and Practice: Worship, Virtue, and Authority*.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1.
- Thomas Merton, *Praying the Psalms*. Collegeville: St. John’s Press, 1956; 오무수 역, 『시편으로 바치는 기도: 가장 완전한 기도』 서울: 성바오로, 1985.
- Morgenstern, Julian. “The Cultic Setting of the ‘Enthronement Psalms,’” *Hebrew Union College Annual* 35 (1964) 1-42.
- Perrot, Charles. “The Reading of the Bible in the Ancient Synagogue,” in edited by Martin Jan Mulder, *Mikra: Text, Translation,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Hebrew Bible in Ancient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Van Gorcum: Fortress Press, 1990.
- Rabinowitz, J. “Does Midrash Tehillim Reflect the Triennial Cycle?” *Jewish Quarterly Review* 26 (1935/36) 349-68.
- Reid, Stephen Breck. (ed). *Psalms and Practice: Worship, Virtue, and Authority*.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1.
- Sander, Paul. “Five Books of Psalms?” in edited by Erich Zenger,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the Psalms*. Leuven, Paris: Peeters, 2010. 677-87.
- Sarna, Nahum M. *Songs of the Heart: An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New York: Schocken, 1993.
- Schmidt, Konrad. “The Canon and the Cult: the Emergence of Book Religion in Ancient Israel and the Gradual Sublimation of the Temple Cul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1/2 (2012) 289-305.
- Snaith, N. H. “The Triennial Cycle and the Psalte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51 (1933) 302-307.

Stuhlmüller, Carroll. "The Psalms in the Liturgy of the Hours," *Liturgical Ministry* 2 (Summer 1993) 98-104.

Thackeray, Henry John. "The Song of Hannah and Other Lessons and Psalms For the Jewish New Year's Day,"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1 (Jan. 1915) 177-204.

Tanner, Beth L. *The Book of Psalms through the Lens of Intertextuality*. New York: P. Lang, 2001.

Tel, Martin. *Psalms for All Seasons: A Complete Psalter for Worship*. Ada: Brazos Press, 2012.

van Horn, Roger and Brent A. Strawn. *Psalms for Preaching and Worship: A Lectionary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8.

Vos, Cas J. A. *Theopoetry of the Psalms*. London, New York: T & T International, 2005.

Whybray, Norman. *Reading the Psalms as a Book*.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Wilder, Amos Niven. *Theopoetic: Theology and the Religious Imagination*. Lima: Academic Renewal Press, 1976.

Wilson, Gerald H. "A First Century C. E. Date for the Closing of the Book of Psalms?" *Jewish Bible Quarterly* 28/2 (2000) 102-10.

Witvliet, John D. "The Spirituality of the Psalter: Metrical Psalms in Liturgy and Life in Calvin's Geneva." *Calvin Theological Journal*, 32/2 (1997), 273-97.

_____. *The Biblical Psalms in Christian Worship: A Brief Introduction and Guide to Resources*. Grand Rapids: Eerdmans, 2007.

검색어

시편

성서일과

수행적 읽기

동방교회

서방교회

A Practical Use of the Book of Psalms

Chang Joo Kim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an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the way in which the Psalms were utilized, not only in worship but also in real life, and thus I investigated how the Psalms were used in ancient Jewish community, in the medieval Orthodox church, and in the Catholic community.

The Book of Psalms is a collection of compositions that the Israelites sang toward God on various occasions. A close look shows that this collection consists of 5 books, that is, Book I (chaps 1-41), Book II (chaps 42-72), Book III (chaps 73-89), Book IV (chaps 90-106), and Book V (chaps 107-150). Why is it divided into 5 Books? It is often said that David, presumably regarded as its author, is responsible for these five books just as Moses is for the Pentateuch. In recent research, however, the division is shown to be related to a three year cycle of

communal readings of the Israelites. This suggests how deeply the Psalms impacted the Israelites, communally as well as individually. Later, the Western church and the Orthodox church of medieval times began to follow the Judaic tradition. In this respe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two traditions is also necessary.

Meanwhile, theopoetics is a technical term that articulates Yahweh as the origin of revelation and mystery in real life, through poetic emotion. This gives a new perspective from which to radically understand the Psalms. First, theopoetics can inspire poetic imagination,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collection of Psalms is a record of the human quest for God, but not an object of historical criticism. Second, it distinguishes the communication of the Psalms from that of the Pentateuch and the Prophets. In short, the latter are divine teachings and proclamations toward Israel, whereas the former are Israelite responses and confessions toward God. Nonetheless, the Psalms form a part of the biblical canon.

If so, how do the Psalms as part of the canon play a role in daily life? The conclusion that I came to in this study is that the Israelites read the Psalms regularly and repeatedly as an annual reciting of scripture. The Psalms are difficult when you read them for the first time. Thus, the ancient biblical community took an assigned portion of the Psalms routinely every 3 years. Such regular reading sheds light on every word of the Psalms. In this way the reciting of the Psalms becomes a duty of a devotee, and further the text of the Psalms simultaneously becomes part of the texture of daily life. This is why Hieronimus called the Psalms the Grand Temple. The Psalms lectionary specifies performative and disciplined reading.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therefore, to lead us to use and understand the Psalms in performative readings in our daily lives.

Keywords

Psalms
lectionary
performative reading
Western church
Orthodox church

- 투고일: 2015년 04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4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5월 06일